

채용행사 정보 등 홍보사항

**참여전, 일정 등의 변경 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□ 2021 전역예정장병 온라인 취업박람회

2021 전역예정장병 **온라인** 취업박람회

행사 일정 안내

-전반기 2회 운영-

3월 29일 (월) ~ 4월 09일 (금)

6월 07일 (월) ~ 6월 18일 (금)

안녕하세요.

2021 전역예정장병 온라인 취업박람회 운영사무국입니다.

전역예정장병 온라인 취업박람회 전반기 행사는

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**온라인**으로 2회 진행 됩니다.

✓ 행사 일정

구분	행사 일정
전반기 (2회)	3월 29일 (월) ~ 4월 9일 (금) 6월 7일 (월) ~ 6월 18일 (금)
후반기	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진행 예정 (추후 공지)

장병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!

문의 | 박람회 운영사무국 02-2006-6131~3 moti@career.co.kr

코로나19 여성 고용충격 회복에 중점, 여성 일자리 체질개선에도 착수

- 3월 4일, 「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」 발표 -

코로나19 여성 고용충격 회복을 집중 지원하고 여성 일자리 체질개선도 준비하겠습니다.

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



공공·민간 여성일자리 확대

- ✓ 돌봄, 디지털, 방역 등 서비스 확대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
- ✓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
- ✓ 새일여성인턴 확대



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·창업지원 강화

- ✓ '국민취업지원제도'를 통해 중장년 여성(40~50대) 집중 지원
- ✓ '지역·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' 내 경력단절여성 특화 지원 신설
- ✓ 경력단절여성 범부처 통합취업 지원서비스 추진
- ✓ K-Digital Credit 확대 등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강화

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



돌봄 및 고용 유지 지원

- ✓ 가족돌봄비용(10일, 1일 당 5만 원) 긴급지원 연장
- ✓ 아이돌보미 추가채용 등 정부돌봄서비스 확대
- ✓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(최대 520만 원) 등 정부지원 확대
- ✓ 새일센터,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통한 이·전직 고용서비스 제공



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

- ✓ 사회서비스원 확대 및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도입 검토
- ✓ 가사근로자법 제정 및 표준이용계약서 마련·배포
- ✓ 디지털 혁신공유대학, W-브릿지 등 미래 유망분야 초기 진입 확대
- ✓ 적극적고용개선조치에 절대평가 요소 도입 등 업종별 성별고용격차 완화 추진



정책기반 강화

- ✓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 개정 추진
- ✓ 중앙-지방 여성 고용협의체 운영

1 공공·민간 여성일자리 확대

- 먼저, 일자리 회복을 위해 즉각적으로 고용효과를 낼 수 있는 마중물로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공·민간부문 여성일job 자리를 확대한다.

※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해소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(새일센터 설문조사(1,100명 대상), '21.2.1~2.9, 중복응답) :
 ▲취업지원서비스 확대강화(53%), ▲여성고용기업에 채용장려금 등 지원(38%), ▲공공일자리 지원(35%) 등

- 돌봄, 디지털, 방역 등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5만 7천 개의 일job 자리를 확대하여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고,
-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, 새일여성인턴 확대, R&D 여성연구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2만 명의 여성 채용 촉진을 추가로 지원한다.

과제	내용	일자리
특별고용촉진장려금	중소기업등 사업주가 일정기간 실업 중인 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·채용 시 1인 당 월 최대 100만원X6개월 지원	+추경 1.8만 명
새일여성인턴	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등 대상 인턴 채용 기업과 개인에게 인턴지원금·장려금 등(총 380만 원) 지원	기존 7,777명 +추경 2,000명
R&D 여성연구원 지원	①중소·중견기업 대상 신진 여성연구원 채용 시 인건비 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교육 등 지원 ②과학기술 연구관이 경력단절여성 연구원 채용 시 인건비 지원 등	기존 570명

- 따라서,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7.7만 명의 추가 지원을 포함한 금년 중 여성 일job 자리 지원 규모는 78만 여 개*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.

* 2021년 본 예산 반영 직접 일job 자리 수 104만 개 중 기존 여성 참여 비율 반영한 수치 포함 등

2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·창업 지원 강화

-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여성들이 신속하게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·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, 노동시장 변화에 발맞춰 신기술·숙련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한다.
-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비경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형 사업(5만 명)을 통해 고용피해가 집중된 중장년 여성(40~50대)을 집중 지원한다.

-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'지역·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*'에 경력단절여성 특화형을 신설하여, 경력단절여성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할 예정이다.

* 자치단체가 지역·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·산업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

- 또한, 과학기술 등 전문분야별 직업훈련을 수료할 경우 새일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취업연계, 사후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'경력단절여성 범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'를 8개 부처가 협업으로 추진하고,

- 비전공자 대상 디지털 역량 향상 기본 교육훈련 과정인 K-디지털 크레딧(K-Digital Credit)* 사업규모를 2배로 확대하여, 여성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기로 하였다.

*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초중급 디지털 훈련에 참여할 경우 기존 훈련비 한도와 별도로 50만 원 추가 지원

- 더불어, 여성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여성창업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여성 기술 창업자 대상 특화 패키지 프로그램*을 운영하여 기술기반 창업 희망 여성들에 대한 패키지 지원도 확대한다.

* (W-창업지원 패키지) 기술창업교육을 통한 맞춤형 창업교육 및 기술분야별 멘토링·사업화 지원

3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

- 코로나19로 가중된 여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,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한다.

- 휴원·휴교 등 자녀 돌봄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써야하는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였던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*을 연장하고,

* <지원금액> 1일 5만원(최대 10일 지원), <지원기간>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

- 일대일 맞춤형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아이돌보미도 추가로 확충한다.(21년 기준 8,800명 + 추가 3,000명)

- 또한 재가돌봄근로자 대상 1인 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도 확대('21년 기존 9만 명+추가 6만 명)한다.
-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 원씩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정부지원 규모도 기존 2만 천 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하고, 재택근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컨설팅도 400개소에 지원한다.
- 더불어 고용위기업종 등을 대상으로 특화훈련과정을 신설하고 훈련비용을 확대 지원(지원단가의 130%)하며, 새일센터와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* 등을 통해 '취업상담-진로탐색·컨설팅-희망업종 직업훈련-취업알선'의 이·전직 고용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.

* 지원규모 : '21년 총 8만 명(생애경력설계 4만 명, 취·창업 지원 4만 명)

4 미래 노동시장으로 포용적 도약 :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

- 미래 노동시장에서 포용적 도약과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일자리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, 미래 유망분야로의 여성 진입 촉진, 성별업종분리 해소 등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를 추진한다.
- 사회서비스원 확대 및 근로자 직접 고용을 추진하고, 돌봄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검토 등 돌봄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여건 기반을 마련하며,
 -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을 통한 근로조건 보호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.
- 또한, 디지털 등 미래 유망분야에 여성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비전공자에게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,
 - 초·중·고 여학생 등을 포함한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생애주기별 교육과 커리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W-브릿지 사업(5천 명 목표)도 올해 3월 말 처음 시범 운영하며,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일자리 발굴 및 관련

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.

- 특히, 2006년부터 시행해 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(AA) 제도도 15년 만에 제도의 근본 틀을 개선하기로 하였다.
- 현행 제도는 업종별 평균 여성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의 70%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여성고용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, 남녀간 노동시장의 업종별 분리현상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.
- 이번 대책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, 여성 고용률 평가에 있어 절대평가 요소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TF를 구성하고 금년 중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.

5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

- 여성 고용위기의 체계적 대응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, 기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중심의 정책체계에서 벗어나 경력단절 예방·맞춤형 경력설계 등으로 정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 개정을 추진하고,
 - 중앙-지방 여성 고용협의체를 운영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여성 일자리 논의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강화한다.
 - 또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, 종사자 교육, 프로그램 보급 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.
-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“이번 대책은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 유지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, 여성일자리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함께 포함하였다.”라며,
 - “이번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여성 일자리가 신속하게 회복되고, 미래 노동시장에서도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부서	여성가족부	여성인력개발과	이윤아 과 장(02-2100-6191) 박혜원 사무관(02-2100-6219)
	기획재정부	일자리경제정책과	김영민 과 장(044-215-8530) 고영욱 사무관(044-215-8531)
	고용노동부	여성고용정책과	임동희 과 장(044-202-7470) 윤종호 사무관(044-202-7472)
	과학기술정보통신부	과학기술문화과	조경옥 과 장(044-202-4840) 손성근 연구관(044-202-4845)
	중소벤처기업부	정책총괄과	조경원 과 장(042-481-4537) 이경규 사무관(042-481-4363)
	산업통상자원부	산업기술정책과	안세진 과 장(044-203-4510) 김현섭 사무관(044-203-4514)
	보건복지부	사회서비스자원과	김우기 과 장(044-202-3250) 신은경 서기관(044-202-3252)
	교육부	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	천범산 과 장(044-203-6883) 김홍오 사무관(044-203-6313)



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"공공누리 제1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“재택근무 잘하는 기업으로 가는 길”

「재택근무 종합 컨설팅」 참여기업 모집 3.8.(월)~3.26.(금)

- 올해 400개 기업에 12주간 맞춤형 무료 컨설팅 제공 -
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올해 '재택근무 종합 컨설팅'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8일(월)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.
 - 1차 참여기업 모집은 3월 26일(금)까지 3주간 진행되고, 올해 상반기 중 3회 내외의 모집 기간이 추가로 있을 예정이다.
 - 중소·중견기업 등 재택근무 도입·개선을 희망하는 기업은 폭넓게 신청할 수 있으며, 올해 총 400개소의 참여기업 선정되어 12주 무료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.
- '재택근무 종합 컨설팅'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하는 방식인 재택근무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고, 선도사례를 육성하고자 2020년 9월부터 시작된 한국판 뉴딜 사업이다.
 - 이 사업을 통해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기업에 전문 컨설팅 기관 소속 인사노무 컨설턴트와 정보기술(IT) 컨설턴트를 현장 투입하고,
 - 총 12주 동안 사업장 진단(1~2주), 인사노무제도·정보기술(IT) 기반시설 도입 설계 및 정부지원제도 연계(3~8주), 시범운영(9~10주) 및 사후 관리(11~12주)를 한다.
 - 기업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사노무관리 규정의 재·개정, 정보기술(IT) 기반시설 도입, 노사협의 및 인식개선, 노동법적 쟁점 해결, 정부지원제도 연계 등에 대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의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 - 올해 컨설팅 수행기관으로는 한국생산성본부, 한국능률협회컨설팅,

한국표준협회 총 3개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기업별 맞춤형 재택근무 도입·운영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.

〈2020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의 주요 성과〉

□ 2020년에는 총 212개소의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컨설팅을 했고, 다양한 업종·규모의 기업이 참여하여 만족도가 높았다.

○ 업종별로는 제조업(23.1%, 49개소), 정보통신업(22.6%, 48개소)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18.4%, 39개소), 도소매업(11.3%, 24개소)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.

○ 사업장 규모로는 종사자 수 30~99명 규모가 80개소(37.7%)로 가장 많았고, 30명 미만 59개소(27.8%), 100~299명 51개소(24.1%), 300명 이상 22개소(10.4%) 순으로 다양한 규모의 사업장이 참여했다.

○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컨설턴트의 전문성*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92.3%, 컨설팅이 재택근무 도입·활용에 도움*이 되었다는 의견이 90.7%를 차지하는 등 컨설팅에 대한 사업장 만족도가 크게 높았다.

* 매우 만족 55.49%, 대체로 만족 36.81%, 보통 7.14%, 불만족 0.56%

** 매우 그렇다 54.95%, 그런 편이다 35.71%, 보통이다 8.24%, 그렇지 않은 편이다 1.1%

□ 또한, 많은 중소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재택근무 우수 사례도 도출됐다.

○ 건설서비스업종 중견기업인 '벽산 엔지니어링(주)'는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부서장 등 중간관리자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한 사례이다.

- 재택근로자 설문조사 등 내부의견 수렴을 통해 재택근무에 꼭 필요한 세부 규정 정비, 컴퓨터 대여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 결과,



- 작년 11월 시범운영 이후 재택근무 활용 인원은 150명에 달하며, 업무집중도와 효율성, 근무 만족도 측면에서 긍정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제도가 순항 중이다.
- 제조·전자상거래업종의 '한국캘러웨이골프(유)'는 기존의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해 온 바탕 위에 상시적 재택근무를 전사 범위로 확대하기 위해 컨설팅을 신청했다.
 -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재택근무 적합 직무 분류를 위한 정성·정량평가를 하고, 주당 최대 3일의 재택근무일 배정, 업무 양과 질 관리 절차 등 관련 규정을 구체화했다.
 - 이후 시행한 시범운영에서 근로자와 관리자 양측의 높은 만족도는 물론, 간결한 회의와 보고체계를 바탕으로 생산성도 향상됐다.
 - 평균 근로시간도 주 45.7시간에서 43.7시간으로 2시간 단축됐다.
- 공공기관인 한국국학진흥원도 재택근무를 일·가정양립형, 전염병 예방형 등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세분화된 규정, 지침서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제도운영의 모범 사례가 됐다.
- 그 밖에도 정보기술(IT) 및 전문 서비스업종 중 '한국씨아이엠(주)'가 재택근무로 절감한 사무실 운영비용을 각종 복지제도로 구성원에게 환원한 사례,
 - '(주)퍼니플렉스'가 장거리·해외거주자, 장애인, 임산부 등을 근무 장소의 제약 없이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재택근무를 확대한 사례,
 - '(주)서울CRO'가 완전한 비대면 근무를 목표로 컨설팅에 참여하여 현재 100% 재택근무 중인 사례 등이 돋보였다.
- 이 같은 우수기업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수록한 「2020년

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우수사례집」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(www.worklife.kr)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.

〈2021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주요 개편사항〉

- 한편,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사업을 확대·개선하여 양질의 선도사례를 육성·발굴해 나갈 계획이다.
 - 2020년도 212개소 지원에 이어 2021년도에는 총 400개소로 지원 규모를 약 2배로 늘이고, 기업당 컨설팅 기간도 9주에서 12주로 확대했다.
 - 또한, 재택근무를 처음 접해보는 기업에 대한 종합컨설팅뿐만 아니라 자체 운영 경험을 토대로 성과관리, 조직문화 개선 등 특정 주제에 대해 심화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에 적합한 컨설팅 과정을 새롭게 개발하여 적용할 예정이다.
- 2021년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우편* 또는 전자우편**으로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 작성서류와 사업자등록증,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.
 - * (우편 접수처)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,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문화개선정책과 (30117)
 - ** (전자우편 접수처) goodyang11@korea.kr
- 작성서류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(www.moel.go.kr)*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.
 - * 고용노동부 누리집 → 뉴스소식 → 공지사항
- 기업은 신청서 작성 시 선호하는 컨설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,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한 기관의 컨설팅 물량 소진 시에는 적절한 기관으로 조정하여 배정될 수 있다.
- 민길수 고용지원정책관은 “재택근무가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 강화, 근로자의 일·생활균형 증진을 도모하고,

-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·재해 등 비상상황에서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미래의 사회·경제구조에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를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공개표시 상영영역지 변경금지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송이 사무관(☎044-202-7497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	--